

제3호 07+08 2022

Magazine

새벽종

제3호 07+08 2022

새마을운동중앙회

함께하는 새마을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3
ISSN 2799-9343

9 772799 934002 07



표지 이야기

새마을운동이 일궈나가는 새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벽종>. 이번 호의 표지는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4년 5월 창간한 월간 <새마을>, 1998년 3월 창간한 「새마을운동」신문에 이어 2022년 3월 새롭게 시작하는 격월간 종합교양문화잡지 <새벽종>으로 새마을정신과 시대정신을 이어갑니다.

Prologue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단합과 협동으로 이겨내곤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합심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 몰라도

그 힘을 합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로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구심점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만드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힘, '함께'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함께하는 새마을



Prologue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단합과 협동으로 이겨내곤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합심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 몰라도
그 힘을 합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로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구심점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만드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힘, '함께'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지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CONTENTS

제3호 07+08 2022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1 새마을 리얼

06

Focus

우리함께 펼치는 '대·새'의 꿈

-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

10

펼침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운동

14

어울림

살맛나는 공동체운동 '좋은 마을 만들기'



18

누림

통영의 여름 안에서 푸르름을 누리다

- 통영 여행(with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22

울림

대전환의 시대, "초극복"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필요합니다

2 새마을 리얼

24

이슈 탐독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만남, 메타버스



28

새마을 사람들 I

강원도의 청정을 지키는 사람들

- 강원도새마을회

32

새마을 사람들 II

온 마을이 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지금 꼭 필요한 새마을운동

-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

36

대학새마을동아리

새마을정신에 젊음을 더하다

-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38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로운 내일의 시작! 새마을운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다

- 키르기스스탄 · 동티모르

40

친절한 건강 가이드

여름철 눈 건강 관리법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비건 뷰티, 나다운 가치를 바르다

3 새마을 뉴스

46

중앙회 소식

48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2년 7월 10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염홍철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3~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우리함께 펼치는 '대·새'의 꿈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

1970년에 시작된 52년 역사의 새마을운동이 대학가에서 환경 살리기와 자원봉사 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이 열렸다. 'MZ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공유한 뜻깊은 행사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write/photo. 홍보실





대학새마을동아리 활동은 우리 마을과 우리 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살맛나는 공동체로 만드는 위대하고 경건한 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전국대학 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은 '우리함께 펼치는 대(학)새(마을)동(아리)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중앙회장단, 시도새마을회장, 대학총장, 지도교수,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원들에게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대와 화합으로 새마을운동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은 대학새마을동아리 홍보영상 시청,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위촉장 및 연합회기 수여, 기념사와 축사,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미디어 북)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현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각 대학새마을동아리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중앙회 4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박준영 영남대학교 학생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1년간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이끌어갈 박준영 씨는 "대학들과 연합으로 환경정화활동과 재능기부 활동, 탄소중립 캠페인 등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확대,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경제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정신적·문화적 부흥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대학새마을동아리 활동은 우리 마을과 우리 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살맛나는 공동체로 만드는 위대하고 경건한 일인 만큼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 모두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새마을운동이 세대를 이어 발전하는 '오늘의 운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고,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세대 연결을 모토로 대학 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공동체가 처한 시대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6월 21일 현재)삼육대, 한밭대, 동아대, 경북대, 카이스트, 울산대, 경기대, 충북도립대, 신성대, 전북대, 세한대, 영남대, 경남대, 제주대 등 전국의 6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3개 대학새마을동아리(총 2,000여 명의 회원)를 구성했다.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활동을 포함해 교육봉사, 농촌일손돕기, 소외계층 돌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

1
퍼포먼스

2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

3
선언문 낭독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운동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민 간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족과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살리는 공동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지역 내 상호연대와 상생을 통해 '나'에서 '우리'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고 있다.

참여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의 돌봄과 나눔 확대, 봉사 활동의 내실화,

지역공동체 문화적 역량 강화, 재난재해 구호 활동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신뢰, 배려, 나눔, 협동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한다.

write. 신지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동체 의식의 복원을 위해 총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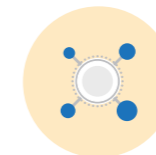
주민 참여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 참여해 함께 해결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사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연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봄



문화적 역량 강화

일상 속 문화 활동을 매개로
지역 내 공동체 활동 확산



재난재해 구호 사업

효과적 재난재해 구호 활동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 수립, 지원



주민역량 강화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과 새마을교육을
연계하여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의식 회복 홍보

우수 공동체 활동을 홍보하여
지역 기반 공동체 의식 회복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사업**
나눔, 돌봄 등 공동체운동

사업내용	횟수	참여자
마을 공동체운동	773개 마을	20개 시범마을 선정
김장 담가주기	1,529회(944,534포기)	61,815명(225,938가구 수혜)
연탄나누기	245회(247,858장)	3,414명(1,011세대 수혜)
경로 위안사업	2,648회	26,594명(148,926명 수혜)
독거노인 관련 사업	36,297회	99,374명
소년소녀가장 관련 사업	474회	5,258명
기타 이웃돕기 관련 사업	4,339회	56,469명
새마을 외조상, 여인상 시상	22회	685명



* 2022년 2월 총회자료

지역관계망 사업
독서문화운동

사업내용	운영현황	참여자
새마을작은도서관	1,197개관	1,119,728명
피서지 독서문화시설	71개소(1,063일)	25,718명
도서교환시장	92개소(959일)	20,445명
이동도서관	차량 31대(921개소 순회)	182,154명
대학 독서회	42개소(104개 소모임)	3,220명
시군구 독서문화행사	14개시도	15,023명
독서문화운동가 양성과정	39개 과정(581시간 교육)	1,117명 수료
길 위의 인문학 (문학기행)	62회	1,563명
재능기부동아리 활동	138개 동아리	1,030명



* 2022년 2월 총회자료

재난재해 구호활동
코로나19 방역 활동

사업내용	횟수	참여자
코로나19 방역 활동	87,730개소	150,045명
마스크 제작	32,890장	1,110명
성금, 구호품 기부	9,506,494천원	14,213명
응원 현수막 게시	1,083개소	-
응원 메시지 전달	8,776회	19,496명
현혈 캠페인	-	3,033명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1,228회	14,905명
어려운 농가 농산물 팔아주기	1,314,336천원	14,875명
선별(임시)진료소 안내 봉사	736회	3,122명
기타 캠페인	2,688회	28,460명



* 2022년 2월 총회자료

재난재해 구호활동
강원, 경북 산불피해 복구 활동

사업내용	횟수	참여자
산불 피해 복구 활동	12일간 6개 시군	545명(강원 : 254명, 경북 : 300명)
성금 모금	113,782천원	중앙회, 18개 시도
구호품 기부	23,880천원	쌀, 라면, 생필품 3,695박스

복구 활동 내용은 급식 봉사, 이재민 구호 활동, 구호 물자관리 및 배분 등 다양합니다.



* 2022년 5월 기준

살맛나는 공동체운동 '좋은 마을 만들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해 급격한 고령화, 빈부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다문화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산적해있고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마을의 성장을 돕기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힘쓰는 중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은 어떤 것일까? 개인과 마을의 성장을 돕는 좋은 만들기 사업과 현장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write. 김민영



1,2

사랑의 집 고쳐주기(경남 통영시새마을회)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시스템 구축에 나서다

과거 새마을운동은 '가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실천에 나선 범국민 운동이었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세상을 목표로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나서고 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이웃 간의 분쟁해결, 소외계층 살피기, 재난 구호활동 등 마을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무 심기,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 실천의 '생명운동',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의 화합과 격려를 통해 힘이 되는 '평화운동',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추진 유형은 농어촌형(리·통 단위 마을)과 도시형(골목중심,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나뉜다. 첫 단계는 '새싹마을'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아 마을의 특성을 찾고 실천 가능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2년 이상 마을공동체를 추진한 마을은 '나무마을'로 구분되는데 이 시기에는 추진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하며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로 들어선다. 마지막

'숲마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근 마을공동체와 결합해 활동의 폭을 넓히는 등 공동체운동을 확장하는 단계다. 지역주민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풀뿌리 공동체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각 지역 새마을(지)회 역시 마을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교육과 사업계획 자문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를 개최(2022년 11월 예정)해서 주민들에게 동기부여와 격려를 하고, 우수 마을공동체 활동사례집을 제작하여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지구 위기 극복 위한 '생명공동체'

공동체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해양 산성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인류가 처한 현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류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생명운동을 통해 자신과 지역의 변화에 발 벗고 나선 공동체가 있다. 광주시는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소형가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가정마다 쓰지 않는 소형가전들이 방치돼 있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소형가전을 수집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에 공유마당을 조성했다. 100여 점의 소형가전이 모였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바꿔 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생명운동 현장교육'과 '기후위기 실천 체험교실'을 비롯해 공유시설의 운영 노하우와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등을 수강하며 기본을 익혔고, 앞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과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유용미생물군(EM) 활용액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주시 동구의 공동체 활동도 눈에 띈다. 동구의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천의 악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오염수에 대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EM 나눔 탱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행사에서 무료 나눔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섰다. 덕분에 경험자들로부터 하수구 냄새퇴치와 화초 생장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의 사용과 호응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악취가 심했던 광주천 부근이 깨끗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의 자랑으로 변화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다.

'쾌적한 환경 만들기'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공동체

21세기 공동체운동은 주민들이 서로를 돕고 화합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조직적인 사회활동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 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 공동체 역시 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대표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약속했다.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이 많은 마을의 상황을 반영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고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월 1회 이상의 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악취와 쓰레기로 불편했던 마을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 화단 관리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쾌적한 마을로 재탄생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 청주시새마을회는 '상생'과 '협력'의 단합된 모습으로 내 주변을 살피고 지역의 문제를 보듬는 공동체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곳 남너지도자들은 어른신께 생필품과 밑반찬 등을 전달하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려운 이웃의 집을 수리하는 등 나눔과 돌봄을 실천 중이다.

경기 성남시 성남동 해피마을공동체도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이 노후화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보수작업에 나섰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수리하고 조명을



교체했으며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힘을 모았다. 또한 마을의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가구의 청소 요청을 받고 고인의 집을 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연대하며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운동은 이웃을 연결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21세기 공동체운동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조직적인 사회활동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3,4 생필품 나누기(충북 청주시새마을회)



July + August

통영의 여름 안에서 푸르름을 누리다

통영 여행(with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여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도심 벗어나 되도록 멀리 가보기로 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남 통영. 나폴리에 가본 적이 없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통영은 통영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항구도시라는 것이었다.

write. 김진희 photo. 김병구

파도의 리듬 따라 걷는 공원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며 통영 날씨를 검색해 보니 '맑음'이라는 두 글자가 반갑게 웃고 있었다. 기분 좋은 여행을 예감하며 남쪽을 향해 달려갔다.

통영 여행의 출발점은 이순신 공원이었다. 주차를 하고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키 큰 메타세콰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다. 줄지어 선 메타세콰리아 가로수의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가득한 공원에는 바닷바람이 드나들어 정오가 되어가는 시간이었음에도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초여름의 초록 나무들 사이에는 흰색, 민트색, 보라색 꽃들이 뭉게뭉게 피어 있었다. 이순신 공원은 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데, 이 계절엔 수국이 그 주인공이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니 시원스러운 파도 소리가 울리고 바다내음을 실은 바람이 밀려왔다. 과연 머지않은 곳에

통영항과 한산도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풍경에 저절로 감탄사가 새어 나왔다.

불현듯 뒤를 돌아보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높다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제야 상기했다.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 왜적 소탕에 큰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곳이라는 것을. 바다를 가리키는 이순신 장군의 손을 따라 다시 시선을 바다로 던졌다. 그 옛날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대승을 거뒀던 한산대첩 당시를 상상해 보니 어쩐지 가슴이 벅차올랐다.

맑고 푸른 남해바다를 옆에 끼고 해안산책로에 걸음을 내디뎠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다도해의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귓가에 부딪히는 여름 바다의 파도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감탄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여행지로 향하기 위해 공원을 빠져나왔다.



수군의 피와 땀을 느끼다

이순신공원에서 아름답고 광활한 한산도 앞바다를 보고 난 후, 한산대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일어 한산대첩 광장에 들었다.

한산대첩 광장은 승리를 거둔 장졸들과 격군들의 송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광장이다. 푸르른 여름 하늘이 흰히 보이는 너른 광장에 들어서면 판옥선 위에 수군 군상 조형물들이 위용을 드러내며 세워져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활 쏘는 사부, 노 젓는 병사, 북을 치고 나팔 부는 취타대 등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수군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놓아, 비록 조형물이지만 당시의 긴박한 분위기와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광장 바닥에는 학의 날개 모양대로 학익진 전법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광장 지하에 있는 홍보관에서는 전시를 통해 위기와 고난을 이겨냈던 조상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한산대첩 광장을 나오며 문득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삶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전진할 용기를 내기보다 후퇴하기에 급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의 담대함을 되새기며 고개를 돌려 멀어져 가는 한산대첩 광장을 바라보았다.

10분의 통영 하늘 비행

통영의 도심과 한려수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를 타는 것이다.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는 미륵산 8부 능선까지 운행하는데, 그 길이가 1,975m로 국내 일반관광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다. 거리는 길지만 중간 지주를 1개만 설치하는 친환경적인 설계로 환경보호는 물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탄 케이블카는 이내 미륵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미륵산은 산림청이 지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미륵이라는 이름에는 미륵불이 강림할 곳이라는 전설이 담겨 있다. 사방으로 뚫린 통창을 통해 감상하는 한려수도의 경치는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다.

미륵산 상부 역사에 내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시야가 탁 트인 한산대첩 전망대가 나타났다. 쪽빛 바다에 흩어져있는 섬들은 짙은 초록으로 뒤덮여 있고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이끈 뜨거운 전장은 더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드디어 미륵봉에 다다르니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다도해의 수려한 풍광이 펼쳐져 있었다. 학림도와 비진도, 연대도, 육지도 등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섬들을 헤아리다 보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날씨가 허락해 주어야만 만날 수 있는 장면

이기에 파노라마 모드로 병풍처럼 펼쳐진 한려수도의 풍경을 촬영했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10분은 여운을 다 달래기엔 짧게만 느껴졌다.

야경 속에 번지는 여운

케이블카에서 내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화려하게 조명을 밝히는 아름다운 다리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영 시내와 미륵도를 잇는 통영대교였다.

삼각형 그물 모양의 아치트러스 공법으로 만들어진 통영대교는 투광등을 설치해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하게 빛난다.

통영대교가 내려다보이는 루프탑 카페로 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감미로운 빛이 감싼 통영대교와 도시의 불빛들은 여행의 여운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듯했다. ☺

1
통영 시내와 미륵도를 잇는 통영대교의 화려한 야경

2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장졸들과 격군들의 송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한산대첩 광장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회장단

통영시새마을회 소개와 활동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영시새마을회(회장 임명률)라는 이름 아래 협의회·부녀회·직공장·문고로 나누어진 4개의 정식단체와 교통봉사대, 대학새마을 동아리 등의 협력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들 모두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단합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들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찾고 지속 가능한 국민운동단체로 나아가고자 상상과 협력하는 통영시 새마을회입니다.

대표적인 공동체운동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협의회는 읍·면·동 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통해 15세대의 이웃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녀회는 '사랑의 김장 나눔'을 통해 2,000여 세대의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직공장협의회는 설·추석이 되면 라면 100상자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희망을 선물하고, 문고는 방학 기간에 아이들을 위한 특강 및 방과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운동을 펼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얼마 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국가유공자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직접 만든 비누꽃바구니와 손편지, 다과를 준비해 학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찾아보었는데, 그중 한 분께서 83세가 되도록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이들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이 많은 이들에게 이로운 국민운동단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집 고쳐주기, 김장 나눔과 같은 고유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줌깅데이와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운동을 하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과 결속력을 높이고, 지회를 중심으로 각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초극복”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필요합니다

52년 역사의 새마을운동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어마어마한 사회적 자산이다. 특히 국가주의 전통이 강하고 시민사회 기반이 약한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이 국민적 자산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어떻게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진화시켜갈 것인가?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시대는 왜 그리고 어떤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하는가?

write. 이해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하여 살아있는 국민운동으로 진화하려면,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학습과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

오늘날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세기적인 대사건이었다고 말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식 발전 모델을 학습하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단 10년 만에 한국 농촌의 생활환경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추진력, 지원 방법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주민의 열망이 없었다면, 열성적인 마을지도자와 부녀지도자가 없었다면,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새마을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이러한 주민과 지도자들의 자발성, 참여, 자조다. 새마을운동이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국민운동으로 점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또 단명하지 않았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하여 살아있는 국민운동으로 진화하려면,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학습과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어떻게, 얼마나 달라진 것일까? 새마을운동이 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은 과연 어떤 것일까?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2019년 32,754 달러, 33위), 2019년 GDP규모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OECD국가들 중 6위, 2010년 한국의 ODA예산은 4조 원을 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의 모습일까? 2018년 3월 한국은 인구 5,000만 이상,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7번째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이 되었는데, 이를 접한 일반시민들의 87%는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숫자는 국민적 자부심보다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유발했다. 성장의 과실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소득감소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혁명과 기후변화, 장수혁명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복합적인 위기를 만들어낸다. 심각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공해와 기후

재앙의 중층적 위기를 앓고 있는 인류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습격을 받았다. 비대면과 비접촉이라는 바이러스의 명령은 디지털 전환을 급격히 앞당겼고, 이 디지털 전환은 온라인 쇼핑과 포장판매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과 쓰레기의 대량배출도 급증했다. 다른 한편, 극소수의 디지털 귀족과 프리캐리어트의 초격차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취약했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위기 속에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 모임인 2050 Lab은 2020년 9월 ‘코로나19,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들에게 초회복은 우리 사회가 질적 변화를 동반하면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말하며, 활동 전략의 전환을 통해 손상 이전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초회복을 위한 큰 그림에는 반드시 국가와 시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가치이다. 각자가 스스로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참여하며, 이웃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좋은 세상, 좋은 시민의 기본이다. 다만 근면, 자조, 협동이 목표로 하는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진 것뿐이다. 정신적으로, 질적으로,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 오늘날의 근면은 장시간의 육체노동이 아닌 기계/AI와 함께하는 사람의 노동,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 있는 노동에 관한 것이고, 자조는 예나 지금이나 주민들의 책임감과 자발성, 참여를 의미하지만, 오늘의 주민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두고, 훨씬 더 수명이 길어졌다. 협동 역시 마을단위의 소득증대를 위한 협동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동으로 읽혀야만 한다.

이렇게 21세기로 확장된 잘 살기 운동의 중심에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은 초회복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와 연대, 네트워크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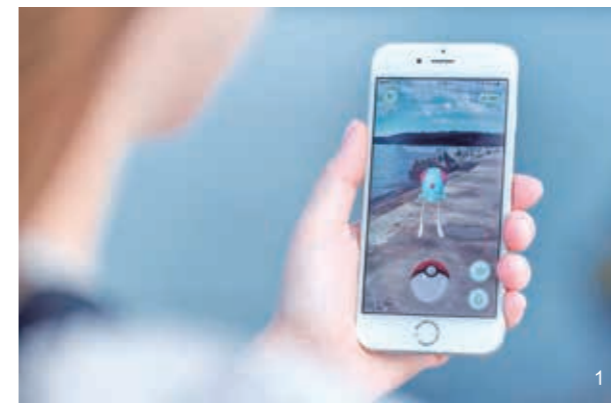


Metaverse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만남,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이다.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라는 소설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이다. 현실의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상공간에 현실의 세계를 펼쳐 가상세계에서 현실의 주요 활동이 이어진다. 처음 인터넷 연결을 시작했을 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가상세계가 사람들의 의구심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메타버스는 아는 사람들은 열광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

write. 김용훈 시사평론가



1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세계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올려 하나의 영향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기술이다.

메타버스(Metaverse)란 무엇인가

미국의 가속연구재단(ASF)은 메타버스를 현실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펼쳐는 증강현실과 완전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가상현실로 구분하였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이란 현실의 세계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올려 하나의 영향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래픽 기술이다. 10여 년 전부터 존재하던 기술이었으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포켓몬고(Pokémon GO)라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 덕분이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세계에 현실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헤드셋 기기 등을 사용한다. 현실을 가상처럼 가상을 현실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입고 발전을 가속하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세계에 익숙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가서 컴퓨터를 켜야 가상세계가 펼쳐졌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 안에서 가상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다. 우리는 낯선 곳을 갈 때 제일 먼저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이동할 장소를 입력한다.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엔 주소를 입력하고 모르는 경우 카페나 음식점 상호 등을 입력하면 가야할 길을 표시해준다. 이것은 서버에 자료를 등록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된다.

게임의 경우는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 로그인을 하고 온라인에서 사용할 이름과 모습을 선택하여 입장하게 된다. 이후 플레이어는 블록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몬스터를 피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 생존하게 된다. 유저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는 유저(Mine)의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Craft) 자신이 만드는 세상에 집중하며 구현된 세상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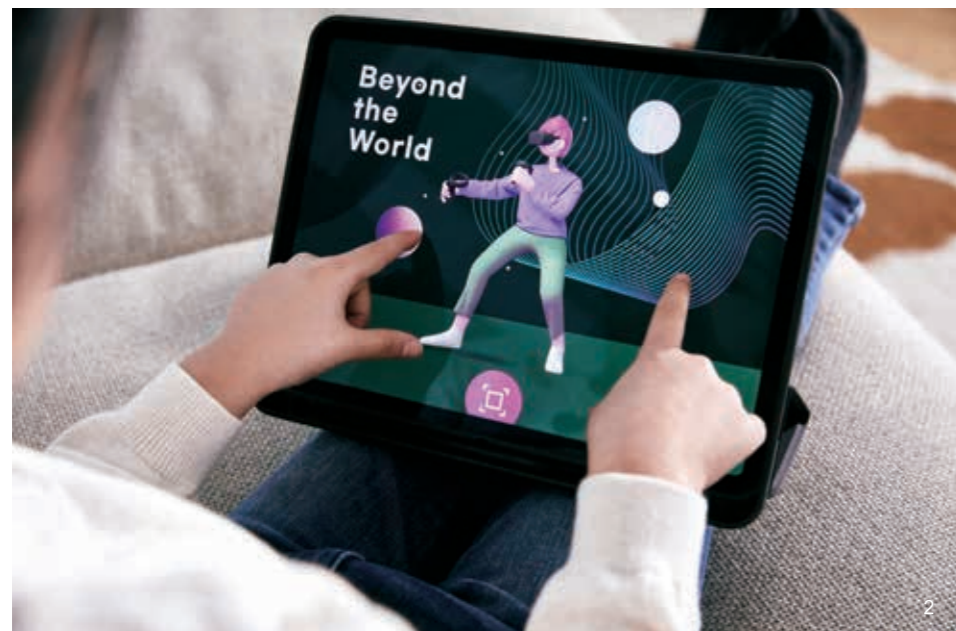
과거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보다 더 빠르게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로 들어오고 있다. 단순히 지도를 찾거나 게임을 위해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의 연속으로 현실에서의 비즈니스나 만남 등이 이어지고 있다. 3차원의 가상세계 플랫폼들이 세워지고 현실의 기업과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제페토에서 쏘나타 차량의 시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페토는 아바타로 활동하는 개인들이 소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현대자동차는 이 공간에서 출시 차량을 구현하고 시승해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축했다. 쇼핑, 업무, 놀이 등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로 현실에서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 차를 타보는 것처럼 가상공간에서 차량 살펴보고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테마파크 에버랜드는 지난 6월 17일 메타버스에 주요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이제 직접 에버랜드에 가지 않고도 에버랜드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체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에버랜드를 찾아가 체험하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아 이를 소비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메타버스에 와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 실제 사육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만나고 면접을 본다. 면접뿐만 아니라 사원연수도 진행한다. 실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품고 있는 아바타가 강당에 모여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며 실제보다 더 강력한 자신을 어필한다. 아바타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행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견과 역량을 충분히 펼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선배를 찾거나 에이전시를 찾아 취업정보를 얻는 등의 취업 준비도 메타버스에서 한다. AI면접 솔루션을 찾으면 지원자의 외모와 음성, 인상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면접 준비 수준을 알려준다. 그리고 VR고글을 착용하면 실제 면접현장 같은 환경이 펼쳐져 리얼한 면접체험도 가능하다. 이미 삼성, LG 등의 우수한



2 우리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소비하고 공부하고 만나고 사업하는 모든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3 VR을 통해 모의 면접을 보고 있는 구직자

● 메타버스 시장은 대면접촉이 불편한 상황을 뚫고 무궁한 가능성과 편의성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진화할 것이다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고 구직자들도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2000년대 싸이월드 미니홈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미니미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도토리 미니홈피와 미니미를 꾸미고 일촌을 늘려가며 가상공간을 즐겼었다. 이것의 발전된 형태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바타를 이용하여 소비하고 공부하고 만나고 사업하는 모든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문을 닫았던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왔다. 예전의 추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3D로 진화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홈 장면만 보였지만 이제는 영역이 확대되어 집을 벗어났고 병원도 입점시켜 원격으로 진료 가능한 체계도 갖추게 된다.

메타버스와 미래

코로나로 대면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웠지만 가상의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졌다. 메타버스 시장은 대면접촉이 불편한 상황을 뚫고 무궁한 가능성과 편의성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진화할 것이다.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처럼 누비고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란 단어로 기술이 진화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가장 최적의 정보를 확보하고 사람들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이란 것이 투입되면서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최적의 자료를 선정하고 이것들의 연결로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할 일들이 기기로 대체되고 최신의 정보들을 보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술은 지금보다 더 편리한 자동화시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에 가상현실(VR) 기술은 인간의 뇌가 실제상황으로 착각을 일으킬 만큼 감각과 후각 등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구축하여 진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거부감 없는 리얼한 가상세계가 구축되게 된다.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콘텐츠는 과거 싸이월드 미니홈피처럼 완성도가 낮은 단계이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고도화 및 관련 기술이 진척되면 현실을 능가하는 가상세계가 유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시작되는 새로운 체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가능성이 더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체계화될 것이다. 특히 실세계의 연결로 결제기능이나 정보보호 등의 보안면에서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컴퓨터의 사용처럼 우리 사회와 생활에서 부가되는 생활영역으로 존재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프리세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의 메타버스 시장규모가 2030년까지 1조 6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약 400억 달러이다. 높은 관심만큼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관련 기술과 시장의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각계각층의 사람과 산업들이 저마다 다양한 관심과 활동을 펼치는 것처럼 가상에 펼쳐진 메타버스의 세상도 다양한 주체들이 저마다의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체계도 가상세계에서는 가능해지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형태, 아이디어, 서비스 등 현실세계에서 한계를 만난 기업과 사람들에게 메타버스는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할 게 될 것이다. 🔄

강원도의 청정을 지키는 사람들

강원도새마을회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대한민국 대표 청정 지역, 강원도. 자연적 조건 덕에 강원도는 예부터 농업을 비롯하여 축산업과 임업, 어업까지 고루 발달해왔고, 더불어 천연기념물의 주요 서식지로도 꼽혀왔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는 돌발성 집중 호우와 한파, 심한 더위 등 극심한 기후변화를 앓고 있다. 이 모두 성장중심의 산업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다.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기후위기에 더 취약해 피해가 더욱 크다. 그래서 강원도새마을회가 몸소 나섰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 강원도새마을회의 탄소중립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자.

write. 권용민 photo. 이민희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

급격한 기후변화를 내날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 강원도 역시 그 피해가 극심하다. 최근 강수 패턴의 변화로 강수량 편중이 증가하며 봄철 가뭄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졌다. 온난화의 가속화로 과거 평균값을 기준으로 극심한 더위와 열대야 기간 역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청정 지역으로, 자연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로서는 그로 인한 손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강원도새마을회 회가 몸소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원도는 땅은 넓되 인구는 1백 53만여 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고, 5개 접경지역 시군이 있어 국가·경제적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환경이지만 강원도새마을회에서는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원도새마을회는 꾸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6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전국 최초 시군(횡성군)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구요, 또 베트남 오지 마을에 강원초등학교를 건립해 지부 단위 최초의 지구촌공동체운동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경을 생각한 탄소중립운동에 동참 중입니다.”

강원도새마을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농촌폐기물 수거 사업인 3R 자원 모으기 운동에서 늘 전국 1, 2위를 앞다툼 정도다. 3R이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줄이기(Reduce)를 뜻하는 말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하나의 운동이자, 낭비되는 자원을 막기 위한 친환경 사업의 일환이다.

강원도, '친환경 시대'를 넘어 '필(必) 환경 시대'로

강원도새마을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금 친환경 사업에 앞장섰다. 기존의 친환경 사업이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진행된 사업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를 넓혀 일반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폐기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현재 강원도새마을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 사업은 총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아이스팩 자원순환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원순환사회 조성 사업으로 강원도 11개 시군 175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 374개를 설치했다. 지난 한 해 수거한 아이스팩을 세척, 소독해 15만5,300여 개를 각 수요처에 공급



- 1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하는 모습
- 2 재사용 아이스팩
- 3 자원순환사회 조성 선포식
- 4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했다. 이외에도 젤 아이스팩을 이용해 방향제, 화분, 모기퇴치제 등을 만들어 생활 속 자원순환 체험교육 등도 진행했다.

“자원이 잘 순환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수요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군 임원들과 함께 중앙시장을 방문해 직접 아이스팩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스팩 수요처 발굴을 위해 지역 시장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죠.”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역시도 쉽지만은 않다. 코로나 확산, 1인 가구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의 소비문화 변화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급증한 탓이다. 2020년 기준, 택배량 19.8%, 배달음식 75.1%,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나 증가했다고 하니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인데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 낭비이자 경제적 손실이기도 하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었잖아요. 아무래도 생활 플라스틱인 만큼 일반 가정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대부분이 농촌으로 단독주택이 많은데, 아파트처럼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단독 인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처럼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이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제 수거와 분리배출을 자연스럽게 독려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봐요. 그것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 활동에 나서는 이유기도 하고요.”

더불어 잘 살자는 새마을운동의 이념 아래 비교적 작은 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던 자원순환사업은 어느덧 지역 규모의 사업으로 커졌다. 이 모두 ‘친환경 시대’를 넘어 ‘필(必)환경 시대’로 나아가려는 강원도새마을회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다. 환경을 생각할 수록 삶이 더욱 풍족해진다는 강원도새마을회,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느라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



온 마을이 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지금 꼭 필요한 새마을운동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하나씩 총 46개소

'새마을작은도서관'이라는 별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는 42개의 동 문고와 4개의 단위 문고, 총 46개소로 이루어져있다. 각 동에 하나씩 배치된 새마을문고는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11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방학에는 대부분 오전에 개방, 10시부터 학생과 주민들이 방문하여 책을 읽을 수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보유 도서도 54만여 권이 훌쩍 넘고 이용자도 11만여 명이 넘는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도서관사업소와 별다른 업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육성지원법에 따라 시 예산 편성으로 도서구입비와 문고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그래서일까? 내부 봉사자들도 문고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다수다. 주민으로부터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는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 즉 새마을운동의 철학이 제대로 결실을 맺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저도 20여 년 전 새마을문고에서 첫 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부터였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좋았고 학교를 마치고 새마을문고를 찾는 아이들과 이야기

끝목 끝에 숨은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그 지하 1층에 세류1동 새마을문고가 자리를 잡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왼쪽으로 돌아 지하로 내려가자 책마을 별천지, 새마을문고가 등장한다. '책먹는아이들'이라는 간판을 달고서 오밀조밀,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게 꾸며진 북카페에서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들려온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진다. 하룻길을 오가며 책도 읽고, 상담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맞벌이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방과후 수업도 듣는다는 아이들. 그 곁에서 20여 년 꾸준히 아이들의 걸을 지켜 온 세류1동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write. 신지선 photo. 이민희

나누는 게 좋았어요." 봉사자로 새마을문고와 첫 인연을 맺었던 안은숙씨는 지금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 회장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책만 빌려주던 형태에서 지금은 북카페 형태로 변형하여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토론과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 주기, 동화 구연, 온라인 책 수업, 독서 토론회, 텃밭 가꾸기, 봉송 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저희 수원시지부에서 독서경진대회 최우수상도 나왔어요. 앞으로는 운영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는 문학기행과 꿈나무 독서캠프다. 문학기행은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로 아이들이 방문한 곳은 황순원 소나기마을, 김유정 문학관, 장영실 과학관, 해군제2대함대 천안함, 국립한글박물관 등 다양하다. 신청을 통해 참여한 인원은 2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은 문학기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해마다 초등학교 4학년 40여 명을 뽑아 2박 3일 진행되는 꿈나무 독서캠프도 의미미하다. 독서캠프는





처음에는 책만 빌려주던 형태에서 지금은 북카페 형태로 전환하여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토론과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관내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행사로 독서논술특강, 독후활동, 협동활동, 새마을운동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동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건전한 캠프활동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특히 독서캠프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는데, 그 이유는 2박3일 동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배제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디지털 기기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2년여 간 이 행사들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번 여름부터는 문학기행과 독서캠프가 꼭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온라인 통합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문 발송과 업무연락, 공지사항 전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문고의 도서 현황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 접속하면 이용자가 도서 현황과 신규 도서 현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책 제목을 입력하면 관내 어느 문고에 원하는 책이 있는지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관내 46개소 새마을문고에 책 소독기가 한 대씩 비치되어 있어 코로나 시대 위생문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희 문고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책도 읽어 주고 놀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때론 간식도 먹을 수 있구요.” 안은숙 회장의 말이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새마을운동이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취지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마을문고 사업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새마을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자들의 손으로 운영되는 풀뿌리 지역사회운동

“가끔 일반 도서관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도서관에 가보시면 전문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는 다릅니다. 책을 빌리러 왔다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엄마들이 봉사자가 되죠. 또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오래 봉사하다 보니 새마을문고의 회장도 되구요. 다만 요즘에는 봉사자 모집이 어려워진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차기 회장 지원자가 있는 문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지역 문고는 회장이 없어서 폐관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도자 확보가 어려워지면

문제가 되니까 회장 임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요.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게 말이죠. 이렇게 좋은 새마을문고가 회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면 안되겠죠?” 안은숙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책을 한 권씩 들고 와 읽어달라고 성화다. 아이들이 들고 온 책은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이다. 예쁜 그림 톤 때문인지 책장을 넘기는 손이 경쾌하다. ‘책먹는 아이들’이라는 간판을 단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 북카페의 여름은 그렇게 오고 있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니 새마을문고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새마을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 | |
|---|---|
| <p>1 새마을작은도서관 내부</p> <p>2 자연과 함께하는 그림책 활동</p> | <p>3 일반 도서관과 새마을문고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은숙 새마을문고 경기 수원시지부 회장</p> |
|---|---|





새마을정신에 젊음을 더하다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 아래 더불어 잘살자는 의미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시금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이념은 이제 내 이웃을 넘어 국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더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으로까지 번져가는 추세다. 이같이 새마을운동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건 젊은 세대가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더 젊고, 더 활기찬 비결 새마을정신, 부산 대학 새마을동아리연합회로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write. 권용민 photo. 이민희

더욱 젊어진 새마을운동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가 지난 4월 13일 부산시 새마을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각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새마을동아리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회원 모집에 나선 결과 그 규모가 차츰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 지역 대학 10곳에서 새마을동아리가 출범하였고, 어느덧 회원 수도 500여 명에 이른다. 모두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깊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활동을 이어나간 결과다. 지역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인 만큼, 교육 봉사나 소외 이웃 돌봄 사업, 재능기부 등

활동 영역 또한 다채롭다.

젊은 변화의 바람은 마을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던 생활 개선 사업에서 벗어나 시대가 처한 기후위기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리타분하고, 낡은 이념으로 취급받던 새마을운동은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재조명되며 지역 및 국가 발전과 더불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생활은 물론 지구촌 기후문제까지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만큼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에서는 여러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학별 운영비 지원은 물론이고 학업과 새마을동아리 간의 균형 있는 활동을 위한 장학금 지급,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우수한 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문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탄소중립 현장 강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부단히 힘쓰는 중이다. 현재 각 대학새마을동아리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은 단연코 탄소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기존

새마을운동의 연장선상이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는 요즘,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요 관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에서는 각 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과 관계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희망자를 선발해 탄소중립 특강과 함께 직접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강의를 진행하도록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이론교육에서부터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실, 유용미생물군(EM) 활성액을 만들고 이를 응용한 놀이 등으로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도록 함으로써 인간이 삶의 터전인 환경과 생태계 간의 균형 있는 조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K-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널리 두각을 드러내는 요즘, 새마을운동 역시 하나의 국가적 브랜드로 거듭났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건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일 것이다. 새로운 한류의 상징이 된 더 젊어진 새마을운동의 비결, 그 시작은 바로 부산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에 있다. 🌱

새로운 내일의 시작! 새마을운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다

키르기스스탄 · 동티모르



한 번쯤 들어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과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많지 않은 나라. 키르기스스탄과 동티모르라는 낯선 이국땅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통해 빈곤을 벗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 본다.

write. 조화숙

한국형 고속 경제발전을 목표로 달린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공화국으로 인구 610여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이 1천300여 달러인 빈국(貧國)이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로 평균 해발고도가 2,700m를 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우리나라 민족은 많은 면에서 아주 흡사하다. 외모가 비슷하고, 언어구조가 같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연장자를 우대하는 풍습까지 동일하다. 심지어 탄생의 증표인 몽골반점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을 정도. 이처럼 우리와 형제의 나라인 듯 꼭 닮은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을 모델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수료한 38명의 연수생이 설립한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센터.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이들의 일념과는 달리 변화가 미미했던 키르기스스탄의 새마을운동은 2016년 10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키르기스스탄 지방 자치청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활개를 펴기 시작했다. 2017년 4월에 4개의 시범마을이 선정되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전기공급, 마을 환경 정비, 도로 포장, 마을회관



키르기스스탄 새마을 시범마을(악바삿마을 재봉사업)



2019 동티모르 새마을 시범마을 현장점검

건립, 주택 개량 등)이 시행됐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농민인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젓소 사육, 양어장, 양계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물론 2차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공사업(밀 가공, 제빵, 사과주스 공장 등)을 추진한 결과 농가 소득이 대폭 증대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향후 새로운 새마을운동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100%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런 키르기스스탄의 변화 속에는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연수를 받고 온 마을지도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나를 비롯한 공동체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 주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결실은 오늘도 키르기스스탄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

21세기 첫 독립국 동티모르! 새마을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나라인 동티모르민주공화국.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76년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됐던 동티모르는 군과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항해서 해방운동을 전개한 끝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2002년 5월에 독립했다. 동남아시아 동쪽 끝에 자리한 섬나라로 면적은 우리나라 경기도의 1.5배 정도이며, 인구 134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때문지 않은 자연과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국가성장 비전을 그리고 있다.

동티모르와 우리의 인연은 1999년에 UN평화유지군으로 상륙수 부대가 파병되면서 시작됐다. 상륙수 부대가 평화유지 활동과

공동 우물, 배수로 건설 등을 병행하면서 동티모르에 새마을운동이 전파됐는데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자립의 지를 이끌어 내자 2015년 동티모르 대통령실은 새마을운동 신규 사업국에 동티모르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고 이듬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티모르 국가행정부 장관 간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동티모르에 새마을운동이 펼쳐졌다. 1차 시범마을로 4개 마을이 선정됐고, 동티모르의 마을지도자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매년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지도자들은 환경개선사업(마을길 포장, 수도시설 개선, 울타리 설치, 유치원 개보수, 마을회관 건립 등), 소득증대사업(채소재배, 양계장, 양어장, 양돈장, 전통직물작업장 등), 의식개혁사업(청년기술교육)을 전개했는데 각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본 동티모르 국가행정부는 2019년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해 한국에 감사를 표하며 자체적으로 예산 60억을 추가로 투입해 새마을운동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아따우로 섬의 1차 시범마을 4곳 외에 딜리 2개, 아이레우 2개 마을이 2차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 주민회관, 관공안내소, 태풍 대피소 등을 겸하는 다목적 회관이 설립되었는데 향후 펼쳐질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와 기대감이 매우 높다.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이고 동티모르 국가 정책 롤모델이 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향한 동티모르 국가행정부의 높은 신뢰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애쓰는 마을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의 열정 속에서 동티모르는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



여름철 눈 건강 관리법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이다. 더구나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휴가철 등으로 갑작스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노출되는 자외선에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write.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

자외선은 눈 건강에도 적

흔히 외출 시 피부 보호를 위해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외선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간과한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A, UV-B, UV-C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UV-B, UV-C는 각막에 거의 흡수되지만 UV-A는 각막과 수정체에 일부 흡수되고, 일부는 망막까지 도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강한 자외선은 우리 눈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미 앓고 있는 백내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릿해지는 질환이다. 자외선이 눈 속에 활성산소를 생성해 몸의 산화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어 수정체가 변하여 백내장이 진행된다.

자외선은 백내장 외에도 다양한 눈 질환을 일으킨다. 눈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면, 각막 상피에 손상을 입히고, 노출시간이

길어지면 섬유조직이 자라 각막을 덮어 시력에 영향을 주는 익상편(군날개)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이 눈 속으로 침투할 경우, 수정체나 망막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로써 완치가 어려운 황반변성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백내장 경우 초기에 생기는 수정체 혼탁은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다 더 진행되어 수정체 전체가 혼탁해지면 시력이 크게 떨어진다. 또 부분적으로 혼탁해지면 한쪽 눈으로 볼 때 사물이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사물이 흐리거나 왜곡되어 보이고, 밝은 빛이 별 모양으로 흩어져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물이 붉거나 노랗게 보이는 등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증상을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백내장임에도 갑자기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수정체 핵이 경화(딱딱해져) 되어 굴절력이 향상되면 가까운 거리의 사물들이 잘 보인다. 이 경우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는 시력이 좋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수술을 해야

백내장에 걸리면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수술치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을 때, 또는 백내장으로 인해 녹내장, 포도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일 때 진행한다.

수술의 경우 본인의 수정체를 적출하고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때 인공수정체는 일반 단초점렌즈와 렌즈 표면에 굴절을 만들어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초점렌즈 두 가지가 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20만 원 내외에 그친다. 하지만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 양쪽 수술에 80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한쪽에만 600만 원 넘게 받는 안과도 있다. 양쪽 모두 수술을 받을 때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 안과마다 고무줄 가격으로 불리는 게 바로 다초점렌즈 시술이다. 실손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 시술하는 것이 급증하면서 최근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초점렌즈가 단초점렌즈에 비해 항상 좋을까. 사람의 수정체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골고루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초점렌즈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 대신 눈에 들어오는 빛을 분산시켜서 대략 반쯤은 멀리 보는데 쓰고 나머지 반은 중간거리나 가까운 거리를 보는 데 쓴다. 사람의 수정체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사람의 수정체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다초점렌즈가 나올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다초점렌즈는 '전체적으로 적당히 보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기대만큼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점을 호소하거나 빛 번짐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이외로 많다.

그런데 한번 시술받으면 다시 다른 렌즈로 바꾸는 시술을 쉽지 않다. 그리고 단초점렌즈는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렌즈일 뿐 아니라, 최근엔 중간 거리까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프리미엄 단초점렌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잘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 금연과 절주를 비롯해 과도한 일광노출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눈 건강을 위한 팁

무엇보다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선글라스 및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분 색이 짙은 렌즈가 자외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색의 종류와 짙고 열음은 차단율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색이 짙고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동공을 확장시켜 눈에 들어가는 자외선 양이 많아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선글라스 선택 시 UVB 99%, UVA 50% 이상 차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안경원에서 검사를 통해 선글라스의 자외선 투과율을 정확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눈을 가릴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해야 하며, 렌즈의 색, 도포 상태 및 흡집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 금연과 절주를 비롯해 당뇨병 등 동반된 전신질환의 치료와 함께 과도한 일광노출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자외선 노출의 경우 황반변성도 노인인구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황반변성은 안구 내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 변성되어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 부위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물체가 휘어져 보임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지 못하면 시력저하가 생기고, 치료 받아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황반변성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담배나 비만 등의 환경적 요인이 대표적이며, 자외선 노출이나 포화지방산 섭취가 그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황반변성은 한번 발병하면 진행속도가 빠르는데 자각증상이나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침침한 현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한눈씩 가려서 봤을 때 사물이 굴곡져 보이거나 시력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안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심각한 시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



비건 뷰티, 나다운 가치를 바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가치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떠올랐다. 윤리적·가치 소비를 일컫는 '미닝아웃' 소비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 열풍을 불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와 친환경적인 행보에 발맞춰, 먹는 식품 업계뿐 아니라 바르고 쓰는 뷰티 업계에서도 비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비건 뷰티. 그렇다면 비건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write. 우다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성'은 생활 전반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으며, '비거니즘(Veganism)'이라는 소비문화 역시 빠르게 확산되었다. 비건은 어떤 목적에서든 동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배제하려는 철학으로, 동물이나 동물성 원료로 만든 모든 것을 지양한다. 특히 식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뷰티·인테리어 등 영역을 넓혀 삶의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시대와 세대의 흐름에 따라,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더 윤리적인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뷰티 열풍이 일자 뷰티 업계에서도 다양한 비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6.3%씩 성장하여, 오는 2025년에는 약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비건 화장품은 제조과정에서 동물성 성분을 배제해야 하는데, 비건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비로소 비건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 비건인증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비건표준인증원, 비건소사이어티, 프랑스비건협회 등 기관에서 인증마크를 부여받아야만 비건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다.

비건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마다 공통조건이 있다. 첫째,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여야 할 것. 제품의 안전성을 실험하기 위해 토끼의 눈에 마스카라를 바르고,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글과 쥐 등이 동물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매년 약 2억 마리 동물이 극도의 고통을 겪고 죽어간다. 국내에서는 2019년 기준 총 37만여 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시행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 및 판매할 수 없다. 둘째, 동물성 원료를 일절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 화장품에 들어

가는 동물성 원료는 생각보다 많다. 일례로 동물의 지방에서 추출한 글리세린과 올레산, 조직과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 상어 간유(肝油)에서 추출해 립밤에 사용하는 스퀴알렌, 꿀벌이 만든 벌집에서 추출한 비즈왁스와 꿀 역시 동물성 원료에 속한다. 특히 립 제품과 블러셔는 연지벌레에서 붉은 염료를 얻어 만들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비건 화장품의 경우 모든 동물성 성분을 배제하거나,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야 한다.

비건 화장품이 친환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유기농·천연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비건 화장품은 유기농·천연 화장품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건 화장품과 유기농·천연 화장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건 화장품은 말 그대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동물성 성분이 단 1%도 함유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반면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유래 성분이 95%이상 함유되고, 그중 동식물성을 포함한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 포함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 화장품은 화학적 합성 원료가 아닌 동식물 유래 원료를 95% 이상 함유된 화장품을 의미한다. 유기농·천연 화장품은 모두 동식물 유래 원료가 함유돼 있다는 점에서 비건 화장품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건강한 성분에 집중한 유기농·천연 화장품과 달리, 비건 화장품은 친환경적이고도 제조공정이 착한 윤리식을 더욱 강조한다. 동물성 원료를 일절 포함하지 않을뿐더러, 제조·포장·유통 전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의 원료와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친환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비건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다변화된 방식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 비건이 생활양식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자. 🌱

1 새마을운동 홍보 공모전(5.22.~6.30.)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마을운동 홍보 공모전을 개최했다. 새마을운동 홍보 아이디어, 사진, 영상 콘텐츠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 공모전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중앙회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홍보 활용성, 작품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 최종 수상작을 7월 28일에 중앙회 홈페이지와 SNS 게시 및 개별 공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총 6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3 키르기스스탄에 부는 새마을바람(6.15.)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2022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새마을 시범마을사업이 종료된 4개 마을 중 2개 마을(아랄, 악바샤트)과 신규로 선정된 4개 마을 중 3개 마을(오록, 오를리노예, 탐가)을 방문해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할 현지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석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과 중앙회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14일(화)(현지시간) 잔타예브 엘치벡 지방자치청장과 이원재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를 각각 만나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현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사업추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 개발도상국에 '적정기술+새마을정신' 융합 지원 맞손(6.2.)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나눔과기술(공동대표 이광일)과 지난 6월 2일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정기술과 새마을정신을 융합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방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주요 협약 사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나눔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건전한 과학기술 문화 연계를 통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 적정기술 관련 제품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등 행사 지원·참여, 교육 콘텐츠 공유 및 강사추천 등 교육사업의 협력, 그 밖에 협약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4 2022 전국회장단 정책연찬 추진(6.8.~21.)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총 4회 일정으로 '2022 전국회장단 정책연찬'을 중앙회에서 실시했다.

중앙회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명·평화·공동체운동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 목적을 뒀다.

이번 연찬에서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염홍철 중앙회장), 코로나 이후 건강관리(김영돈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새마을지도자의 행복설계(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대전환의 시대, '초극복'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이혜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등의 특강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교육기간 동안 단체별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안을 함께 논의, 시도별 상반기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5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을 배우다(6.17.)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6월 17일 중앙회 4강의실에서 '캄보디아 시찰단 1일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마을운동을 모범사례로서 자국의 지역개발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캄보디아 국회의원, 관료, 군장성,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찰단 60여 명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이론 교육과 영상 시청, 새마을역사관 관람으로 새마을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캄보디아는 2009~2014년까지 새마을 시범마을사업을 진행하고, 2014년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방문해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에 대해 상호협력할 것을 논의한 인연이 있다"며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정책과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접목되면 캄보디아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2022 새마을운동후원회 임시총회(6.23.)



새마을운동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중앙회 3강의실에서 후원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운동후원회장에 강태선(주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을 선임했다.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학계, 기업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후원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후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후원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보고와 운영회칙 일부개정(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회장선출(안) 등의 의결 사항 등의 심의가 이뤄졌다.

한편, 새마을운동후원회는 대학새마을동아리활동과 병행해 인재양성을 위한 영구잇기 장학사업 및 조직사업을 정례화하고 후원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도 소식

서울

농촌일손돕기 추진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일근)는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충북 단양군의 마늘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의 기쁨-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활동은 회원 744명이 참여한 가운데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김일근 회장은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라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과정 운영

부산시새마을회(회장 제중모)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 회관 강당에서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김현옥 동서대 지도교수를 비롯해 부산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이번 과정에 참여했다. 수료생들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식물의 변화, 쓰레기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강의를 펼치며 기후 위기를 알리고 탄소중립의 생활 속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대구

새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대구시협의회(회장 김기철)는 지난 5월 13일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새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방역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감염예방에 힘써 온 협의회는 이날 재난재해 구호, 시민안전 시수 등의 실천을 결의했다. 발대식 후 이날 참석한 50여 명의 회원들은 대구시소방안전본부로부터 심폐소생술과 화재 위기대응 교육을 이수했다.

인천

씩줍깅 캠페인 전개

인천시부녀회(회장 이정자)는 지난 5월 16일 옹진군 장경리해수욕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새마을씩줍깅 캠페인을 전개했다. '걷go! 줍go! 건강하go!'를 주제로 한 이날 캠페인에서 회원들은 해변가의 쓰레기를 줍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홍보했다. 이정자 회장은 "나 하나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광주시새마을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 2022 양궁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환영과 환송, 경기장 응원, 관광 안내 등의 교육을 추진했다.

대전

어르신 돌봄 봉사자교육 실시

대전시부녀회(회장 남희수)는 지난 6월 2일부터 5개구에서 새마을머느리봉사대원을 대상으로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홀몸 어르신과 11 결연을 맺은 243명의 대원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치매예방 활동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

'사랑나눔! 건강지킴이' 마스크 전달

직장·공장 울산시협의회(회장 최준식)는 지난 5월 12일 중구 다운동행정복지센터에 방역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전달식에서 최준식 회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필요한 물품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살맛나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세종시새마을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1박2일간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2022년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김효정 강사의 '신명나는 새마을운동', 읍면동별 장기자랑 등 조직 활성화 및 회원들의 정서적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

경기도새마을대학 2기 운영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 부설 경기도새마을대학은 지난 5월 2일부터 리더십스피치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10회로 나눠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새마을가족과 일반인 등 3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새마을대학은 지난해 4월 개원식을 갖고 독서문화지도사·동화구연지도자 3급 과정 27명을 배출했다.



강원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 추진

강원도협의회(회장 백상원)는 '2022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112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교체, 리모콘 스위치 및 LED 전등 설치, 모서리 쿠션 및 안전 레일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협의회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62가구의 집수리를 마쳤다.



충북

나무심기로 탄소중립 실천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이화련)는 지난 6월 3일 제천시새마을회관 인근 휴경기에서 탄소중립 실천 일환으로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이화련 도회장을 비롯해 새마을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양목 500그루, 이팝나무 30그루, 영산홍 410그루를 심었다. 특히, 회양목으로 새마을운동 상징물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쉼터용 정원을 가꾸는 등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분위기 확산에 앞장섰다.



충남

새마을여인상 사례발표 개최

충청남도부녀회(회장 임순복)는 지난 5월 13일 새마을회 회의실에서 제29회 새마을여인상 사례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5명의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1위는 금산군 추부면부녀회의 박정숙 회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7월 6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진행됐다. 새마을여인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가정 가꾸기를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29회를 맞았다.

July + August

전북

세계문화유산 1번지, 고창을 담다

문고 전라북도지부(회장 나순희)는 지난 6월 15일 회원,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1번지 고창에서 '길위의 인문학 기행'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미당시문학관, 선운사, 고창읍성을 찾아 문학작품의 배경과 작품 의도 등 독서문화운동의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

우수농산물 팸투어 추진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2022 전남 우수농산물 알리기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도새마을회는 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향일암 등을 둘러보는 관광의 기회를 제공해 전남 농산물 브랜드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대구시새마을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는 충청북도 새마을회가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북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부녀회(회장 김옥순)는 지난 6월 21일 경상북도청 동라관에서 '제19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영덕군 지품면의 신옥순 회장이 수상했다.



경남

편지로 전하는 가족사랑

경상남도부녀회(회장 한정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랑 효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했다. 부녀회는 편지지 26,000부를 제작해 관내 18개 시군에 배부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24,000명)를 방문해 학생들의 효 편지쓰기 활동을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500여 명)을 비롯한 일반인(1,000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제주

결혼이주여성 천연염색 체험

제주도부녀회(회장 김정임)는 지난 6월 9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부녀회는 관내 결혼이주여성들과 11 결연을 맺어 제주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북5도

현충원 참배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지난 5월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석한 70여 명은 참배 후 제11묘역과 제12묘역에 태극기와 조화를 놓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통일새마을운동의 적극 추진을 다짐했다.



서울 · 인천 강원 · 이북5도 제주

생명

- 서울 종로구부녀회(회장 심재녀)는 지난 6월 7일 인왕산 둘레길 5km구간에서 '줍깅' 활동을 전개했다.
-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지영환)는 지난 6월 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숲체험장을 찾아 자연의 소중함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의 숲체험 활동에 참가하고,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윤현승)와 부녀회(회장 전태연), 직·공장(회장 김용학)은 지난 5월 25일에, 문고(회장 권종형)는 지난 5월 31일에 능동 일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서울 동대문구부녀회(회장 신미숙)는 지난 5월 12일 답십리1동 일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와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사업을 전개했다.



- 서울 강남구지회(회장 안정일)는 대치2동협의회(회장 정정호)와 지난 5월 17일 대치2동주민센터에서 나무와 꽃 445개를 심어 탄소중립 실천과 마을환경 가꾸기에 앞장섰다.
- 인천 중구새마을회(회장 윤경원)는 지난 5월 18일 용유동 삼지공원에서 탄소중립과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황금촉백나무, 철쭉, 해당화 600개를 심었다.
- 인천 서구새마을회(회장 이부중)는 지난 6월 11일 시천문화광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다함께 참여해요'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천연 수세미를 나눔했다.
- 문고 강원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는 지난 6월 11일 새마을 줍깅데이를 맞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립우두나무어린이집 원아 30여 명과 함께 공지전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 강원 태백시협의회(회장 신수철)와 부녀회(회장 이순남)는 지난 6월 4일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관내 전역에서 1,900여 개를 수거·세척해 식육점 등에 전달했다.

- 강원 삼척시부녀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5월 24일 지회 사무실에서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폐식용유를 활용해 재생비누를 만들었다.
- 강원 횡성군 우천면협의회(회장 김진완)와 부녀회(회장 홍정숙)는 지난 6월 23일 '폐 전자렌지를 활용한 사랑의 우체통'을 제작해 횡성군새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설치했다. 이는 폐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자원순환 생활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내 500여 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 강원 평창군 평창읍협의회(회장 송정호)와 부녀회(회장 원금숙)는 지난 6월 8일 관내 둔치에 백일홍 꽃묘를 심는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 강원 철원군 철원읍협의회(회장 홍기삼)와 부녀회(회장 이옥섭)는 지난 6월 9일 해피아이어린이집에서 원아들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군(BM) 효공을 만들었다.
- 제주 제주시 외도동부녀회(회장 강길선)는 지난 5월 19일 자원재활용을 위해 관내 클린하우스에서 투명 페트병 1610kg을 수거했다.
- 제주 서귀포시새마을회(회장 변봉남)는 지난 6월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꽃댕강나무와 산수국 각 500개를 나눔하는 '탄소중립 희망나무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평화

- 서울 중구지회(회장 김명곤)는 지난 5월 30일 홍성교도소 재소자들을 위로 방문하고, 빵과 음료 등 간식을 전달했다.
- 서울 강북구새마을회(회장 차중제)는 지난 6월 3일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했다.
- 서울 노원구새마을회(회장 김오규)는 지난 6월 3일 노원구민의 전당과 중계 근린공원에서 현충일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울 마포구지회(회장 박정환)는 지난 6월 11일 경남 하동 화개면 용강리의 매실 농가를 찾아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 인천 남동구 간석3동협의회(회장 김봉호)는 지난 6월 5일 현충일을 맞아 인천교통공사부터 간석시장까지 이면도로에 태극기 100여 기를 게양했다.
- 강원 원주시 흥업면협의회(회장 이종우)와 부녀회(회장 임명희)는 지난 6월 11일 관내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부녀회(회장 김복자)는 지난 6월 1일 관내 다문화 자매결연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공동체

- 서울 중랑구부녀회(회장 최순남)는 지난 6월 2일 서촌경로당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로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청소년가정 가정에 전달했다.
- 서울 서초구부녀회(회장 서미나)는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일원에서 홀몸 어르신과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 사업의 일환으로 메주와 간장을 분리하는 작업을 펼쳤다.



- 인천 연수구 연수1동부녀회(회장 장군자)는 지난 5월 22일 행정복지센터 요리실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50세대, 다문화가정 10세대에 전달했다.
- 인천 부평구부녀회(회장 김동연)는 지난 5월 18일 평신트리공원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국수 나눔' 사업을 열고 600여 명에게 잔치국수와 떡, 과일 등을 대접했다.
-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 6월 7일 동사무소에서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64가구에 전달했다.



- 강원 강릉시 옥계면부녀회(회장 김근자)는 지난 5월 26일 복지회관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 강원 속초시부녀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5월 31일 중도문2리를 찾아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의 이불을 수거·세탁해 가져다드리는 '사랑실은 빨래터' 사업을 펼쳤다.
-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부녀회(회장 서희숙)는 지난 5월 10일 신천리 청소회관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25세대에 전달했다.
- 제주 제주시 노형동협의회(회장 한재중)와 삼양동협의회(회장 홍왕유)는 지난 5월 22일 각각 관내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실시했다.

생명

- 부산 부산진구새마을회(회장 고대규)는 지난 5월 16일 서면 주디스테화 인근 도로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줌깅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 부산 영도구부녀회(회장 박정남)는 지난 5월 27일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과 함께 관내 청학수변공원에서 담배꽂초와 애견 배설물을 수거하는 등 줌깅 활동을 전개했다.
- 부산 금정구새마을회는 지난 5월 4일 관내 도로변 3km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마을 줌깅데이'를 실시했다.
- 대구 북구 산격동부녀회(회장 이길자)는 지난 6월 15일 관내 인근 도로를 따라 담배꽂초 및 일회용 커피컵 등을 수거하며 '줍깅' 캠페인을 추진했다.
- 대구 수성구 고산2동부녀회(회장 노선희)는 지난 6월 3일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고등학교 인근 화단에서 시든 꽃을 제거하고 여름꽃을 새로 심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기 수원시새마을회(회장 최봉근)는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마을 줌깅 릴레이'를 실시했다.
- 경기 성남시새마을회(회장 임원목)는 지난 5월 17일 신흥3동 공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식재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자산홍 230그루와 황금사철 60그루를 심었다.



- 경기 안양시새마을회(회장 김의중)는 지난 6월 3일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계2동 외곽순환도로 및 경수대로 주변 약 3km 구간의 쓰레기를 줌 '새마을줍깅데이' 활동을 전개했다.

- 경기 평택시 자산동부녀회(회장 김은경)는 지난 6월 10일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마을도로 4개소에 메리골드, 천일홍 등 6,000여 개를 심었다.

평화

- 부산 부산진구새마을회(회장 고대규)와 동의대학교새마을동아리(회장 김민영)는 지난 6월 4일 경남 김해시 상동 산딸기 농가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했다.
- 문고 대구 동구지부(회장 설중구)는 지난 6월 4일 동촌유원지 해달별공원에서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자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한 '제9회 한마음 독서감상화 대회'를 개최했다.
- 대구 서구새마을회(회장 김동근)는 지난 6월 22일 관내 구청 앞 주차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증되는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임상근)와 부녀회(회장 유순복)는 지난 6월 5일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마늘 농가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했다.
- 경기 용인시새마을회(회장 김춘연)는 지난 5월 17일 용인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지구촌 옷 나눔 장터' 사업을 통해 1,500여 점의 의류와 신발을 관내 어려운 이웃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엽)는 지난 5월 11일 새마을지도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서산시 팔봉면 마늘 농가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했다.

공동체

- 부산 서구 동대신1동협의회(회장 이충엽)는 지난 6월 7일 여름철 해충 및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위생적인 동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골목길 등 생활 환경 취약지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 부산 동구 수정5동부녀회(회장 윤귀분)는 지난 6월 13일 관내 경로당 11개소에 한해 동안 직접 재배한 오디 열매

를 수확해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중구지부(회장 홍선화)는 지난 6월 8일 보수초등학교 일원에서 '꿈과 행복 찾기 독서 캠페인' 사업을 통해 하교하는 보수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권장도서 100권을 배부했다.



- 문고 부산 영도구 동삼2동분회(회장 강현영)는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건강 삼계탕 나눔' 사업을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15가구에 삼계탕을 만들어 전달했다.
-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부녀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5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접 담근 계절김치를 관내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 부산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는 지난 6월 16일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관내 어르신 6,000여 명을 초청해 '제23회 기장어르신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 대구 달서구 상인3동협의회(회장 김주희)와 부녀회(회장 광목)는 지난 6월 8일과 15일 각각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펼쳤다.



- 대구 중구협의회(회장 이도수)와 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6월 10일 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관내 동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업무일지 작성 및 회의진행요령,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토론하는 '2022년도 총무교육'을 실시했다.
- 대구 동구 효목2동협의회(회장 권학도)와 부녀회(회장 권찬규)는 지난 6월 9~10일, 이틀간 새마을지도자 10여 명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장 담그기' 사업을 추진했다.
- 직장·공장 대구 남구협의회와 문고(회장 강진규)는 지난 6월 11일 새마을지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해 낡은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이웃사랑 활동을 실시했다.

- 세종 조치원읍협의회(회장 김영철)와 부녀회(회장 김순화)는 지난 5월 13일 직접 담근 고추장을 관내 취약계층 90여 가구에 전달하는 '가정의 달 맛이 조치원읍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사업을 실시했다.
- 세종 고운동협의회(회장 장명호)와 부녀회(회장 김현경)는 지난 6월 15일 관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사업을 개최하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 140kg을 관내 취약계층 70가구에 전달했다.
- 세종 부강면협의회(회장 원광회)와 부녀회(회장 송미자)는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0일 관내 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이웃 돌봄활동을 전개했다



- 경기 고양시 일산3동부녀회(회장 엄선자)는 지난 6월 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467가구에 김 세트를 전달하는 '가정의 달 맛이 효꾸리미 전달' 사업을 실시했다.
- 경기 부천시새마을회(회장 조우형)는 지난 6월 7일 새마을회관에서 '2022 이웃사랑 꾸러미' 전달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담근 고추장을 관내 취약계층 400가구에 전달했다.



- 직장·공장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오세덕)는 지난 5월 10일 '2022년 사랑의 효 나눔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 30명에게 이불과 위생용품(마스크, 칫솔 등) 세트를 전달했다.
- 경기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이진현)와 부녀회(회장 김정옥)는 지난 5월 17일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열무김치 1,000통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생명

- 문고 광주 동구지부(회장 김대영)는 지난 6월 8일 새마을회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유용미생물군(EM) 활성액 100리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산수2동부녀회(회장 마영희)는 지난 6월 12일 두암타운에서 재사용 아이스팩 150여 개를 회수해 세척·건조하는 활동을 펼쳤다.
- 전북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원석)는 지난 5월 10일 인후공원일대에서 남녀지도자 50여 명과 전주새마을회 이사, 명예 고문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골목길, 하천변, 학교주변, 직장 내에서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회장 장오준)는 협의회(회장 이시형)와 부녀회(회장 강이순) 남녀지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2일 평화동 전군도로 주변에서 깨끗한 익산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활동의 일환으로 '줍깅'활동을 펼쳤다.



- 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서근전)는 지난 6월 14일 전남시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페트병 재활용 장바구니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장바구니 사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 전남 광양시새마을회(회장 정용태)는 지난 6월 13일 관내 아파트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50개를 설치하는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사업'을 실시했다.
- 전남 곡성군새마을회(회장 김영중)는 지난 6월 2일 재활용품 수집창고에서 6개월간 수집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매각 후 창고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했다.
- 경남 진주시 상봉동부녀회(회장 이영숙)는 지난 5월 25일 관내 복숭아둘레길 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경남 김해시 주촌면협의회(회장 김호영)와 부녀회(회장 김도현)는 지난 6월 9일 양동마을회관 주변 꽃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공터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장유3동부녀회(회장 서영희)도 지난 6월 13일 율하지구 유흥부지에 조성한 코스모스 꽃밭에서 풀매기 및 쓰레기 치우기 작업을 펼쳤다.
- 경남 밀양시부녀회(회장 하경자)는 지난 5월 18일 내이동 주택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자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평화

- 전남 광양시부녀회(회장 황호순)는 지난 6월 10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약동 황방마을 매실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협의회(회장 전병록)와 부녀회(회장 이계인)는 지난 6월 7일 창원초등학교와 소담초등학교를 방문해 5월 가정의 달에 실시한 효 편지쓰기 시상식을 했다. 진해구 풍호동협의회(회장 허주행)와 부녀회(회장 이연희)는 지난 5월 27일 관내 휴경지에서 열무, 오이, 방울토마토를 경작해 첫 수확했다.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부녀회(회장 김점미)와 집현면부녀회(회장 이미연)는 지난 5월 21일 각각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관내 마늘농가의 수확을 도왔다.
- 경남 사천시새마을회(회장 정경수)는 지난 6월 2일 9,900㎡ 크기의 관내 휴경지에서 희망 나눔 실천으로 지난해 심은 보리를 수확을 했다.
- 경남 김해시 불암동부녀회(회장 김미선)는 지난 6월 9일 지역아동센터에서 효 편지쓰기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장과 시상품을 전달했다.
- 경남 밀양시새마을회(회장 김호근)는 지난 6월 1일 교동공설운동장에서 밀양 산불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산불진화대원, 소방관 및 군인, 현장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300인분의 급식봉사를 전개했다.



공동체

- 광주 동구 지산2동부녀회(회장 김영초)는 지난 6월 1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성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함께 요리를 배워보는 '할배요리사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 광주 서구 광천동부녀회(회장 이정남)는 지난 6월 14일 관내 일원에서 6월 홀몸 어르신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실시해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힘썼다.
- 전북 익산시 영등동부녀회(회장 이인옥)는 지난 6월 8일 배추김치와 돼지불고기를 준비해 관내 형편이 어려운 30가정에 전달했다. 신동부녀회(회장 이연희)도 지난 6월 13일 삼계탕을 만들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 전북 정읍시 초산동협의회(회장 한석홍)와 부녀회(회장 유현)는 지난 5월 17일 시새마을회관에서 주거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정리 방법과 기술을 익혀 실제 생활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친환경 번기세정제 만들기를 함께 실시했다.
- 전북 남원시부녀회(회장 윤정옥)는 지난 6월 14일 한우물 마을에서 자장면 나눔활동을 펼치고, 계란빵과 팝콘을 직접 구워 동네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 전북 장수군 장수읍부녀회(회장 정순옥)는 지난 5월 4일 양산마을회관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겨울이불 이동식 빨래방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이기전)와 부녀회(회장 권영남)는 지난 6월 23일 시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사업을 개최해 관내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이웃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전남 목포시 용당2동부녀회(회장 박경애)는 지난 5월 15일 충현교회 본당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사랑 큰잔치' 활동을 펼쳤다. 하당동부녀회(회장

- 김수정)는 지난 5월 16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활동을 실시했다.
- 문고 전남 순천시지부(회장 김순금)는 지난 6월 13일 독서문화운동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전통놀이기구를 활용 실습 발표 시간을 가졌다. 덕연동부녀회(회장 최순)도 지난 6월 9일 연향동 동성공원일대 상가 뒷골목에서 안심방범 순찰활동을 펼쳤다.
- 전남 담양군새마을회(회장 김종수)는 지난 6월 8일 금성면 원울마을회관에서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활동을 펼쳤다.
- 전남 완도군 완도읍부녀회(회장 김종미)는 지난 6월 16일 정도리 일원에서 관내 고령 어르신 세대를 위한 이불빨래 사업을 실시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 전남 신안군새마을회(회장 오인석)는 지난 6월 12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14개 읍면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26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교체, 싱크대·샷시·LED전등 교체 등 집 고쳐주기 작업을 전개했다.



- 경남 통영시부녀회(회장 김수연)는 지난 5월 1일부터 20일 동안 관내 초등학교, 시민, 다문화주부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가족사랑 효 편지쓰기'를 실시했다. 문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분회(회장 최미숙)는 지난 5월 25일 청구아파트 내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2권씩 도서를 배달하는 '배달의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다.
- 경남 사천시 정동면부녀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6월 21일 행정복지센터 청사광장에서 매달 실시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의 일환으로 자장면 나눔활동을 펼쳤다.



생명

- 대전 동구새마을회(회장 강광석) 새마을지도자 50여명과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5월 17일 대동천 일원에서 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유용미생물균(BM) 흙공 던지기 사업을 실시했다.



- 대전 중구부녀회(회장 민희영)는 지난 5월 23일 문창동 알뜰매장에서 3R자원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수집한 투명 페트병 약 218kg을 분류 작업했다.
- 충북 청주시 남이면협의회(회장 이성재)와 부녀회(회장 성인락), 가덕면협의회(회장 박은영)와 부녀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6월 6일 각각 관내 일원에서 자원재활용 실천을 위해 농약병과 페트병을 수거했다.
- 충북 제천시새마을회(회장 이동연)는 지난 6월 2일 새마을회관 인근에서 화양목 500그루, 이팝나무 30그루, 영산홍 410그루를 심어 새마을 탄소중립공원을 조성했다.



- 충남 보령시지회(회장 추동신), 협의회(회장 백길호), 부녀회(회장 신명숙)는 지난 4월 29일 대천항에서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새마을 줍깅데이' 사업을 추진했다.
- 경북 김천시 구성면협의회(회장 김병기)와 부녀회(회장 서흥년)는 지난 5월 4일 관내 일원에서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유리병을 수거했다. 울곡동부녀회(회장 이서현)는 지난 5월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500여개를 세척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달했다.
- 경북 안동시 서구동부녀회(회장 박숙이)는 지난 6월 3일 관내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사업을 추진했다.
-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협의회(회장 오정근)와 부녀회(회장 박금숙)는 지난 5월 12일 관내 일원에서 '새마을 줍깅데이' 사업과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거를 실시했다.

- 경북 영주시 풍기읍협의회(회장 양창모)와 부녀회(회장 서경미)는 지난 5월 8일 관내 일원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을 위한 피자원 모으기 사업을 추진했다.

평화

-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정수용)와 부녀회(회장 김영조)는 지난 6월 3일 관내 일원에서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울산 남구 신정5동협의회(회장 박무성), 부녀회(회장 김영희), 문고(회장 김신우)는 지난 6월 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충일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충북 청주시 사창동부녀회(회장 조영옥), 모충동협의회(회장 김중대)와 부녀회(회장 이홍순)는 지난 6월 5일 각각 관내 일손이 부족한 이웃가정을 방문해 잡초제거, 고추 다듬기, 모내기를 했다.
- 충북 충주시 엄정면협의회(회장 신동범)와 부녀회(회장 홍은명)는 지난 6월 11일 하일마을 옥수수 농가를 방문해 결순따기, 잡초제거 등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용산동협의회(회장 신광하)와 부녀회(회장 임유순)는 지난 6월 12일 살미면 복숭아농가에서 적과 및 봉지 씌우기 일손돕기를 했다.
- 충북 진천군부녀회(회장 이정심)는 지난 6월 7일부터 10까지 3일간 관내 초등학교 3곳에서 학생 약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 글로 전해요 사랑의 효편지쓰기' 사업을 전개했다.
-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허찬)는 지난 5월 17일 관내 일원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모내기' 사업을 추진했다.
- 충남 논산시 벌곡면부녀회(회장 김금자)는 지난 5월 27일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역화폐 75만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동수)와 부녀회(회장 이연순)는 지난 4월 30일 둔포면 감자밭에서 제조 작업 및 복주기를 했다.

공동체

- 대전 동구 효동협의회(회장 김종희)는 지난 6월 5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수리 및 손잡이 설치를 했다.
- 대전 서구부녀회(회장 김화자)는 지난 6월 13일 새마을회관에서 지난 9일 수확한 매실 160kg으로 매실청을 담갔다.
- 울산 중구 학생동부녀회(회장 손정희)와 우정동부녀회(회장 김순애)는 지난 6월 2일 각각 관내 경로 효 식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사업을 전개했다.
- 울산 남구부녀회(회장 배순호)는 지난 6월 2일 도산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사업을 실시해 관내 어르신 24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 울산 동구부녀회(회장 안영숙)는 지난 6월 7일 새마을회관에서 회원 100명이 각 가정에서 만들어진 반찬을 관내 취약계층 50가정에 전달하는 '손맛 담은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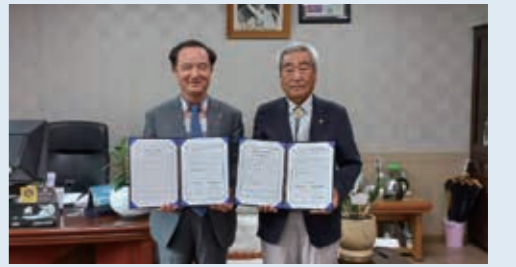
- 충북 충주시 목행용탄동협의회(회장 윤관노)와 부녀회(회장 심영규)는 지난 6월 2일 관내 일원에서 다자녀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물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 충남 천안시 풍세면부녀회(회장 유영희), 쌍용3동협의회(회장 박종선)와 부녀회(회장 백순옥)는 지난 6월 7일과 8일 각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무김치를 담가 저소득 취약계층 50가정에 전달했다.
- 충남 공주시 계룡면부녀회(회장 한복숙)는 지난 6월 3일 관내 일원에서 홀몸 어르신 34가정에 과일과 떡을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충남 보령시 성주면부녀회(회장 이명숙)는 지난 5월 19일 면사무소에서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22가구에 나눔을 실천했다.
- 충남 서산시 부춘동협의회(회장 이원식)와 부녀회(회장 이경애)는 지난 5월 29일 행복드림 집수리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 2가정을 방문해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집안 대청소를 했다.
- 경북 포항시 연일읍부녀회(회장 김경란)는 지난 5월 28일

관내 급식소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도시락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장량동부녀회(회장 김순애)는 지난 5월 31일 관내 일원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 15가정에 전달했다.

- 경북 경주시 동천동협의회(회장 최영술)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가정을 찾아 벽지와 장판교체, 싱크대 설치를 했다. 중부동협의회(회장 박상웅)와 부녀회(회장 장정희)는 지난 6월 2일 관내 소외된 이웃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 및 외벽 도색 작업을 했다.
- 경북 김천시 울곡동부녀회(회장 이서현)는 지난 5월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4개월간 수거한 보육 물품을 분류해 관내 아동보육시설에 전달했다.



- 경북 안동시 강남동부녀회(회장 금점향)는 지난 5월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구구팔팔 닭백숙 나눔' 사업을 전개해 관내 어르신 100세대에 나눔을 실천했다.
- 경북 영주시 휴천2동부녀회(회장 송숙자)는 지난 5월 23일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경북 고령군새마을회(회장 박종규), 협의회(회장 객재윤), 부녀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5월 24일 관내 공동급식소에서 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57가정에 전달했다.
- 경북 울진군 울진읍협의회(회장 장덕윤)와 부녀회(회장 노현정), 편해읍부녀회(회장 박만금), 죽변면부녀회(회장 전명화)는 지난 5월 24일과 25일 각각 관내 일원에서 홀몸 어르신 가정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경북 청도군새마을회(회장 정해용)는 지난 8일 모계중·고등학교(교장 장석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 내 새마을동아리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5+6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강석엽

예전 신문지면으로는 실을 수 없었던 각 지역의 새마을단체 활동을 연재해주셔서 부녀회활동 6년차인 저로서는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부산시 서구 저희 마을이 홍보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매거진으로 더 충만해진 새마을운동 응원합니다!!!

이상훈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한 상식과 운동법을 소개한 건강정보 기사가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건강정보 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점으로 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요소요소에 있는 새마을 조직원들이 추천하는 우리 동네 맛집 같은 기사도 연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문희

새벽종 노래가 이른 아침 온 동네에 울려 퍼지면 부모님을 따라 마을 앞산에 나무 심으러 갔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탄소중립 실천한 새마을운동, 앞으로도 영원하리~

유재범

내일의 글로벌 새마을리더, 영남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소개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계승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현대에 잘 접목시켜 국가 발전은 물론 지구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파트너십 구축에도 많은 역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전경욱

새벽종을 알리는 새마을운동을 알게 되어 봉사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봉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역 새마을회에 들어오세요!

권태호

새마을운동, 한참 잊고 있었던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다시 초심을 잡게 해준 <새벽종>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는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키워낸다는 부심

도시와 경제를
살린다는 부심

이 멋진 곳을
지켜간다는 부심



농부신 농부심

대한민국에
농부라는 자부심이 커지도록!

